

4.

유형지에서 행방불명된 우리 민족들.

나의 부친 박태준씨는 1945년 9월 말에 집으로 떠나 원동변방 연해주 크라쓰끼노시에, 다른 지방에서 공병된 조선청년들과 함께 52명으로 되는 특별조로 도착하였던바, 그들은 덕슈켄트주 군사동원부로 불어는 소련군 기관 리하일로브 상위의 호송을 받아 움직여왔다. 크라쓰끼노시에서, 이 곳은 1937년 조선인들의 강제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연후영이라고도 종종 불리왔던바, 조선인들이 가장조 일하게 살고 있던 백시예트 구역 중앙소재지다. 이 곳은 1937년 7월에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조선인 정착지로 민족지치현으로 선포되었으나, 그해 8월 21일에 원동지역에서 조선민족을 강제이주할데 대한 ~~결정~~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 내각의 결정으로 백리야라 상기 결정은 실현에 응하지 못하리니, 현당비서 김아파나씨 (아주 위력한 공산주의자로서 1921년에 박진순과 함께 모스크와에서 레닌과 상봉하였음)는 백리야라의 불법 독재 정책에 의하여

훈춘에 도착하였다 ~~11~~ 훈춘 역전은 얼마전에 군사행동이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 되었으며 군인들이 사용하
 던 화물 차량 안에는 각종 한알 깎지들과 사용하지 아닌
 한알들이 무척^{무척} 많았고, 역전에는 각종 군용리재와 수리를 적적
 한 차량들이 묵혀서고 있었으며, 파괴된 차량들과 화물차
 동차도 무질서하게 파기저기 서고 있었다. 크라스끼노
 시에서 어찌저찌에 출발하여 화물차로 훈춘에 도착하니
 이 지역은 소련땅으로 붙어 150킬로 메트나 격리되어
 있는 외국 땅이었다. 아버지는 한생후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 땅을 밟아보았으나 어쩔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에 많이 들은 광채로 외국이란 직감을 별로 느끼
 지 못하였다. 허련에서 멀지 않게 단층 살린 집들이 많이
 즐집해 서고 있었으나 고풍건물은 한채도 없고 적으면
 한 살린용머슴집이 약 3-4개 붙어있을 뿐이었다.
 일행은 여기에서 객차량들에 무척 많은 숙 조선
 지역을 향하여 남으로 출발하였다. 이 지역은 그
 지형으로 보아 소련지역 우수리스크에서 크라스
 끼노 사이의 지형이 나 똑같았다. 다만 차이점은 소
 련 지역에는 1937년때 강제이주로 인하여 조선사람
 들이 버리고 간 석마칸, 짐방아칸, 소가 집들이 많이 몰려

기차가 움직이는 일정한 시간표가 없이 여유시간을 퇴용하여 움직이며, 연료도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차고가는 열차는, 가만 가다가 되고 서면 쉬는 기차라서 아주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열차 차량안에는 아버지 일행이 타고가는 객차량 두개를 제외하고는 죄난인들로 꽉 들어차고 넘어 차량 위 꼭대기에도 사람들이 안을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열차는 그 다음날 저녁에야 회령읍에 도착하였던 바 지방언론들은 노선으로 불어 조선인 해방군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가 도착하자 일행은 영접군들의 인도하에 크다란 움직이는 자리를 잡고 간단한 연설문을 주고 받은 후 아주 반가운 답회복에서 저녁시간은 ^{바라}놀리 놀리 갔다. 이렇게 아버지 일행은 각 군소재외외 큰도시들에서 아주 반가워 맞아주었으며 축하 연설도 많았으며 제일 다채롭게 맞아준 곳은 함흥이었다. 평양에 1945년 11월 중순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평양에서 소군 사령부 정치부가 발간하는 "소베트 신문" 지에서 교정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7월 불어 출판물검열국에서 상급 검열원, 거역국 부국장 직무에서 게시라기 한국의 동족 상쟁이 끝나자 노동성 부상으로 1960년

6까지 재빨리 내내, 북한에서 사상권을 운동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랐는지 소련파를 모조리 청산하는 판에 걸리어
 아버지는 북상직책에서 철거되고 로동당에서 임종경고
 를 받고 함흥시 사대 부속장으로 조롱되었다 함흥
 에 내려보낼때에는 "거기가서 약 2년 만 일 80년
 도록 중앙에 올라와 종전직위에 회복시킨다" 내렸
 으나 4년이나 지나갔어도 사상검토에 처벌받은
 간부로서 적은 세대들의 교육직료는 도저히 일할수
 없다고 결론 짓고 함경남도 고원군 한광에 부지
 배연으로 내려보내었다가 ~~이후가 1967년~~ 아이들
 이 전부다 소련에 가서 유학한다는것을 알게 된다음
 "사대주의", "소련사상이 농축한다는" 리유로 한광
 로흥자를 내려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후 한광
 간부 사택에서 일러나가 고원군 수동로동자구로 이동
 하여 가서 살면서 어머니는 1974년까지는 2년
 내지 3년에 일차씩 라뉴게트주에 살고 싶은 말
 은 친척들을 찾아와 우리로 만나주면 돈도, 의복도, 양
 식도 얻어가곤 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우리 친척들이 수외에 걸쳐 "친척 망문 초청장을 보내

7
였으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에 부모들이 살고 있던 주소 - "함경남도 고원군
북동 룡동자구 91번에" 편지를 보냈더니 그 끝
에서 최답이 오기를 "본 주소에 박태준과
방옥순이 살지 않고 다른 주소로 옮겨 갔는
데 그 주소는 함양불평이라" 적어 보내었다.
이런 편지를 받고 나는 평양국제 조선대사관
에, 모스크바 국제 조선대사관에, 또 우크라이나
외무성에 등에 편지를 보내어 함양불평된 우리
부모들을 찾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다. 그러나 어
상 모든 기관들에서는 다 한가지 내용의 대답이 왔던
바! "당신네 부모들의 함양을 확정할수 없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외무성의 공식적 질문에 대하여 평양
국제 조선대사관 총영사 웨.웨. 깐스킨 씨가 조선인
주주의 공화국 외무성 국제관계국장 리복역 씨하고
1978년 7월에 담화가 있으나 조선측에서 아무
런 확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기에 명확한것을 전
할수 없다는 최답이 왔을 뿐이었다.

나의 부친 박태준씨는 1915년에 원동 변강 면에
 주 씨로써 논에서 한생하였다. 그는 최우등 성적으
 로 향촌 농민청년 초급으로 졸업하고 1934년에 원동
 위르실로브시 조선인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7
 년에 졸업하였다. 1937년 한인 강제이주시에 아버
 지는 우르베크한 호레즈 시에 도착하여 고향을 잡고
 일하시면서 호레즈 사범대학에 통신학생에서 공
 부하였다. 그는 사대를 졸업한 다음 하우겐즈쿠 "노체
 뷔르" 글노즈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였다 ^{아보르지}
 는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 방옥순과 결혼하게 되었다

1945년에 아버지가 조선에 나가신 후 어머니는
 안뜰 시나를 데리고 남포를 따라 1947년에 북
 한에 가게 되었다. 우리 부모들은 아주 정직한 일꾼으로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20여년간 어란 강제이주를
 조국과 연인을 위하여 사임하시었지만 북한 노동당의
 악질 정책 - 사상검출란 명목하에 재산소유를 없
 어 이전에 살던 지명에 따라 - 남한과, 풍족하
 고 편파, 지방화 비합치산 따름을 분별하고 재산
 소유를 없애고 물이 뜨거워 시정하여 무수한 연인들을

